

장례식장에 과일·주류·음료 반입 허용된다

공정위, 장례식장 표준 약관 개정…조리 음식은 제한 화환은 유족 소유…임의 판매·재사용 시엔 사전 협의

앞으로 장례식장이 유족의 동의 없이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임의로 처분하기 어려워진다.

또 과일과 음료, 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장례식장에 반입할 수 있게 되며, 장례비용과 이용시설 등에 대한 사전 설명도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장례식장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장례 과정에서 발생해온 소비자 불편과 분쟁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앞서 일부 장례식장에서 유족이 화환을 직접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특정 업체를 통해서만 처리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었고, 외부 음식물 반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 표준약관에서는 장례식장에 사용된 화환의 소유권이 이용자인 유족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분하려면 유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기존에는 화환의 소유권과 처리 방법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처분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 국민신문고에는 장례식장이 화환을 1000원에 판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족이 직접 화환을 처분하려 하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는 민원도 접수된 바 있다.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해졌다.

식중독 등 위생사고를 막기 위해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한다.

다만 과일과 음료, 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도 사업자와 이용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 있다. 단 사전 협의 없이 반입한 음식물로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장례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도 강화된다.

그간 장례는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경우

가 많아 소비자가 여러 장례식장의 가격과 서비스를 비교하기 어려웠다. 장례 절차가 시작된 이후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변경하기 쉽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장례식장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시설과 이용료, 장례의식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용료의 구성 항목도 시설임대료와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장례식장을 이용하기 전에 어떤 서비스를 받고 얼마를 부담하는지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장례식장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편과 분쟁을 줄이고 보다 투명한 거래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해 한국장례협회의 표준약관 심사 청구를 받아 추진됐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해 장례식장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호남권 반도체 착공 전 공급망 선점해야”

광주상의. 경제포럼…김양팽 전문연구원 주장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전까지 지역 기업의 공급망 진입을 위한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상공회의소는 25일 브리브 광주 바이룻데호텔에서 지역 기업 대표와 유관기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93차 광주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공지능(AI) 산업의 급성장 속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따른 지역 기업의 기회와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도체 산업의 변화, 지역 기업의 기회와 과제”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원가 절감 중심의 분업 체계에서 경제안보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와 미·중 패권 경쟁을 거치면서 안정적인 공급망과 자국 내 생산 기반 확보가 중요해진 데다 AI와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요국의 생산시설 유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김 연구원은 800조원 규모의 호남권 메가팩 투자가 단순한 공장 유치를 넘어 지역 산업 구조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산업은 전체 투자액의 70~80%를 설비가 차지하는 장비 집약적 산업인 만큼 펌 컨트롤과 장비 반입이 본격화되면 광주·전남 제조업의 생산 역량이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역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반도체 밸류체인에 진입하면 기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산업 체질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을 제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생산시설은 24시간 가동되는 특성상 순간적인 정전이나 초순수 공급 차질만으로도 막대한 생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정적인 기반시설 확보가 사업 성공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다.

지역 기업에는 팹 착공 전까지 남은

기간을 공급망 진입의 ‘골든타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연구원은 “부지 조성과 건축 등 초기 인프라 구축 단계부터 지역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광주의 장비·부품 역량과 전남의 소재 역량을 결합해 단순 협력업체를 넘어 핵심 공급망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SKT, 초슬림 AI폰 ‘갤럭시 퀴텀7’ 출시

SK텔레콤이 얇고 가벼운 디자인에 인공지능(AI) 기능을 강화한 전용 스마트폰을 선보이며 중저가 단말 시장 공략에 나섰다.

팰리세이드, 하이루프·XRT·블랙 잉크 출시

프리미엄 패밀리 SUV 시장 공략…공간감·실용성 갖춰

현대자동차가 국내 완성차 업계 최초로 SUV 기반의 ‘하이루프’ 모델을 앞세운 ‘2027 팰리세이드’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2027 팰리세이드’는 하이루프 모델을 비롯해 프리미엄 디자인의 스페셜 트림 ‘블랙 잉크’와 아웃도어 지향의 ‘XRT’ 트림을 새롭게 투입해 라인업을 대폭 확대하고, 트림별 주요 안전·편의 사양을 기본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팰리세이드 ‘하이루프’ 모델은 루프부를 240mm 높여 한



층 여유롭고 프리미엄한 실내 공간을 확보했으며,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200mm의 전고로 설계돼 공간감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췄다.

2027 팰리세이드 하이루프 모델은 하

이루프, 블랙 DLO 몰딩 등 하이루프 전용 외관 디자인이 적용되며,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21인치 알로이 휠, 파렐타이어 등이 기본사양으로 적용된다.

실내의 경우 하이루프 엠비언트 무드맵프, 스테리 스카이, 2way 팝업 LED 독서등, 21.4인치 하이루프 후석 스마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등 프리미엄 패밀리 특화 사양을 기본 적용한 전용 내장 디자인으로 한 차원 고급스러운 이동 경험을 선사한다.

현대차는 2027 팰리세이드를 통해 캘리그래피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디자인 스페셜 트림 ‘블랙 잉크’도 새롭게 선보인다. 현대차는 아웃도어 지향의 러그드 디자인을 담은 ‘XRT’ 트림도 준비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 기본급 인상·성과급 400% 등

현대자동차 노사가 400% 이상의 성과급과 월 기본급 10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25일 마련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이 오는 31일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면 올해 임협은 타결된다.

노사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울산 공장에서 1박 2일간 이어진 제17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인상 외에 성과급 400%+1270만원, 주시 15주, 복지포인트 5만원, 하기 휴가비 20만원 인상(2027년부터 적용) 등을 담았다.

이와 별도로, 내년 하반기 200명, 2028년 300명 등 기술직(생산직) 5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올해 교섭에서 쟁점이 됐던 상여금 인상은 내년 단체교섭에서 재논의하고, 정년 연장은 법률 개정 시 임금피크제 확대 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또 회사 측이 그동안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제기했던 손해배상 가압류 10건(총 211억7000만원 상당)을 모두 해지하기로 합의했다.

노조는 이번 협상 결과로 조합원당 올해 4084만원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노사는 올해 교섭에서 상여금 인상, 정년 연장, 과거 단체교섭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 복직 등을 두고 갈등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했다.

연합뉴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 알로에